

“석유공급 축소 새 대북제재 北 경제 큰 타격”

중국 전문가들 분석

“북한 대외무역 의존도 낮아

경제제재만으로 효과 반감”

석유 정제품 공급량 축소와 원유 공급 상한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정치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뤄자오(呂超) 라오닝성 사회과학원 한

반도연구소는 25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대북제재로 인해) 대북 원유 중단 조치가 북한 인민들의 민생 문턱까지 다다랐다”면서 “이는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북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뤄 연구원은 석유 정제유 공급 역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북한에 공급되는 정제유의 80%가 중국으로부터 공급되고, 나머지는 주로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로부터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장후이즈(張慧智) 지리대 동북아연구원

교수도 “석유 공급 감소는 국가의 군사화에도 영향을 준다”면서 “북한은 심각하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강력한 제재가 북핵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또 새 대북제재가 통과된 이후 북한이 평양 외곽에 새로운 경제개발구를 설립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주목했다.

뤄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낮고, 자체 회복력을 갖는 특징

이 있다”면서 “그러므로 경제 제재만으로 북한 경제의 근간을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예상했다. 료 연구원은 새 경제개발구에 대해 “북한의 초점이 경제 개발과 대외 개방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새 대북제재의 배경 아래 새로운 경제개발구가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북한은 새 경제 정책을 통해 대북제재에 맞서는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태풍 ‘덴빈’ 베트남 상륙

최대 65만명 대피 전망

베트남이 필리핀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제27호 태풍 ‘덴빈’이 자국 남부지역으로 접근하자 비상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최대 풍속이 시속 약 130km인 이 중형 태풍은 25일 밤 베트남 남단에 상륙해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를 쏟을 것으로 베트남 기상청은 예보했다.

바리아-붕따우 성, 벤제 성, 까마우 성 등 태풍 영향권에 드는 지역에서는 홍수와 산사태 등에 취약한 곳에 사는 주민들의 대피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50만~65만 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선박들에 대해서는 운항 중단과 대피령이 내려졌다.

응우옌 쉰퓌크 베트남 총리는 “모든 불필요한 회의를 취소하고 태풍 대처에 집중하라”고 관련 부처·기관에 지시했다.

베트남 중부지역에는 지난달 초 제23호 태풍 ‘담레이’가 강타해 10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연합뉴스



부부싸움 아닌 전화봉사 중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알려주는 프로그램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G20 올 3분기 경제성장률

한국 1.5%…中·印 이어 3위

한국이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면에서 주요 20개국(G20) 중 3위를 기록하고 성장률 상승폭에선 7년 6개월 만에 1위를 차지했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기준 1.5%로, 성장률 집계가 이뤄진 18개 G20 회원국 중 중국(1.7%)과 인도(1.6%)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G20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은 2015년 3분기 1.3%를 기록, 터키와 공동 3위를 차지한 이후 2년 만이다.

/연합뉴스

일본, 전투기 F-35B 도입 검토…공격형 항모보유 금지 위배

일본이 향후 해상자위대의 헬기 탑재형 호위함에서의 운용을 고려해 단거리 이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이 2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미 도입을 결정한 F-35A 42대 중 일부는 F-35B로 변경하거나 별도로 추가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 내년에 제검토할 ‘방위계획 대강’에도 포함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강습상륙함에 탑재할 수 있는 F-35B 전투기는 단거리 이륙이 가능하고 오스프리처럼 수직 착륙할 수 있다.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운 고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교도통신은 F-35B 전투기를 도입, 호위



일본서 이륙 준비하는 미국 F-35B

함에 탑재한다고 해도 이는 군사적으로는 ‘항모’로 간주돼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공격형 항모 보유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 입장과 상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

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통신은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F-35B 전투기 도입은 가속하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처하려는 것으로, 자위대 전투기의 경계감시 활동 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백제 출신 명장 흑치상지

흑치상지(黑齒常之, ?~689)는 백제 출신의 무장이다. 660년 백제가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된 후 부흥운동에 앞장섰다가 당의 장수 유인궤에게 항복했다. 당나라로 들어가 토번과 돌궐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다. 축전 황제 시절 흑리 주홍의 무고로 옥에 갇혔는데 689년 자결했다.

백제의 서부 출신으로 키가 7척이 넘었고 용감하며 지략을 겸비했다. 벼슬길에 올라 달솔 겸 군장이 되었는데 중국의 자사와 비슷한 직위였다. 당의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자 거느리던 군대와 함께 항복하였다. 소정방이 왕자와 태자를 가두고 많은 사람들을 겁탈하거나 약탈하므로 저항운동에 나섰다. 임종에서 항거하니 한달도

여 경을 경작해 연 5백만여석을 수확해 방어에 만전을 기하였다. 다음해에는 토번의 농찬파를 양비천에서 공격해 승리하고 그들의 양식과 가축을 얻어 귀환했다. 그가 있는 7년 동안 토번은 그를 두려워해 감히 변경을 범할 수 없었다.

684년 명장 이적의 손자인 이경업이 축전 태도의 난을 일으켰다. 황족인 이효일이 30만명을 거느리고 진압에 나섰다. 좌옹양대장군직에 있던 흑치상지는 강남도대총관이 되어 진압 작전에 참여했다. 이경업 난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압되고 그는 당의 대표적 인장으로 신임받게 되었다.

686년 돌궐이 변경을 침입하자 이를 잘 막았다. 내몽골 음산산맥 동쪽에 있는 양정에서 돌궐군 3천여명과 부딪혔는데 그는 200여 기병으로 그

들을 물리쳤다. 날이 어둡자 군영내에 불을 지르고 동남쪽에서도 불이 나자 돌궐군은 당의 군대가 서로 호응하는 것으로 의심해 도주하였다.

687년 동돌궐의 18대 가한인 아사나골독과 아사덕원진이 산서성 좌주에서 변경을 넘어 노략질을 하자 조정은 연연도대총관인 흑치상지를 파견해 싸우게 하였다. 그는 산서성 산음현 동북쪽의 황회도에서 돌궐군을 대파하고 40여리를 추격하니 그들은 달이나 고비사막 북쪽인 적벽으로 사라졌다. 그는 상으로 하사품을 받을 때 마다 장교와 사병에게 나누어 주었다. 군사들이 실수로 그가 타는 명마를 다치게 하니 장교가 불기치는 형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말하기를 “어찌 개인의 말 때문에 관병에게 불기를 지냈는가?” 그의 도량이 이토록 컸다.

당시는 흑리인 색원례, 내준신, 주홍의 전성시대였다. 그들의 무고와 고문으로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다. 주홍은 명신인 위현동을 무고해 죽게 만들었다. 이어 우무위대장군 연공 흑치상지가 음양장군 조희절과 더불어 모반을 일으켰다고 무고해 옥에 가두었다. 689년 10월 옥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그의 무고는 9년 후인 698년 그의 장남 흑치준의 노력으로 해명되었다. 측천후제는 조서를 내려 그를 좌옥검위 대장군으로 추증하고 공훈과 봉작을 회복시켜 주었다.

나당연합군에 항복...모함 당해 자결

못되서 3만여명이 몰려왔다. 부흥운동의 본거지인 주류성이 함락되자 유인궤에게 항복했다. 유인궤의 부장 손인사가 “이들은 짐승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없다”고 반대하자 유인궤는 “두 사람을 보니 믿음을 돈독히 하고 의를 중히 생각한다”며 항복을 받아들였다.

항복 후 당의 장수로 활약했다. 664년 백제망으로 돌아와 웅진도독부의 군장이 되었다. 그러나 웅진도독부가 신라의 공격으로 소멸되자 당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후 돌궐과 토번의 공략에 주력했다. 678년 이경현이 18만 명을 거느리고 토번의 장군 논흠룡과 청해에서 싸워 대패하고 공부상사·우위대장군 유신례가 포로가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좌령군 원외장군 흑치상지는 밤에 결사대 500명을 이끌고 적의 영채를 공격했다. 논흠룡의 장수인 발지 설은 군사를 이끌고 달아났고 이경현은 남은 군대를 거느리고 청해성 낙군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공으로 좌무위장군으로 발탁되고 청해성 하원군의 부사로 임명되었다.

680년 가을 토번이 청해성 하원을 노략질하니 그들과 싸워 승리했다. 이 공으로 하원군경략대사가 되었다. 그는 하원이 군사 요충지인 점을 고려해 군대를 늘려 방어하려 하였으나 군대 불자 수송하는 길이 험해 부득이 봉화대 70여 곳을 설치했다. 둔전 5천

들을 물리쳤다. 날이 어둡자 군영내에 불을 지르고 동남쪽에서도 불이 나자 돌궐군은 당의 군대가 서로 호응하는 것으로 의심해 도주하였다.

687년 동돌궐의 18대 가한인 아사나골독과 아사덕원진이 산서성 좌주에서 변경을 넘어 노략질을 하자 조정은 연연도대총관인 흑치상지를 파견해 싸우게 하였다. 그는 산서성 산음현 동북쪽의 황회도에서 돌궐군을 대파하고 40여리를 추격하니 그들은 달이나 고비사막 북쪽인 적벽으로 사라졌다. 그는 상으로 하사품을 받을 때 마다 장교와 사병에게 나누어 주었다. 군사들이 실수로 그가 타는 명마를 다치게 하니 장교가 불기치는 형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말하기를 “어찌 개인의 말 때문에 관병에게 불기를 지냈는가?” 그의 도량이 이토록 컸다.

당시는 흑리인 색원례, 내준신, 주홍의 전성시대였다. 그들의 무고와 고문으로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다. 주홍은 명신인 위현동을 무고해 죽게 만들었다. 이어 우무위대장군 연공 흑치상지가 음양장군 조희절과 더불어 모반을 일으켰다고 무고해 옥에 가두었다. 689년 10월 옥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그의 무고는 9년 후인 698년 그의 장남 흑치준의 노력으로 해명되었다. 측천후제는 조서를 내려 그를 좌옥검위 대장군으로 추증하고 공훈과 봉작을 회복시켜 주었다.

NPL과 특수물건만이 정답이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선규 H.P 010-3605-5000